

인도 정부,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 행보

■ 인도 정부는 최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법제도의 투명성 제고, 시장개방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정책,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음.

- 인도 대법원은 최근 주요 사건에 대해 인도 사법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보여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인도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음.
 - o 2012년 1월 20일 인도 대법원은 영국 이동통신업체 보다폰이 4년 간 벌여 온 자본 이득세 부과 취하 소송에서 보다폰의 손을 들어줌.¹⁾
 - o 2012년 2월 1일 인도 대법원은 지난 2008년 1월 10일부터 정보통신부가 공개경쟁 입찰 없이 발행한 122개의 2G 주파수 허가를 정경유착에 의한 불법적 행위로 판정, 해당 허가를 취소하고 경쟁 입찰을 지시함.
- 이에 앞선 1월 10일 인도정부는 단일브랜드 소매업 분야의 전면 개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며, 또한 외국인 개인투자자들이 인도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가할 계획을 밝힘.²⁾
- 2012년 1월 인도 정부는 항공부문 자금난 해소를 위해 그 동안 금지되어 왔던 외국계 항공사의 인도 국내 항공사 지분 참여를 최대 49%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 이같은 인도 정부의 행보는 최근 경제성장을 둔화, 경상수지 및 재정적자 확대, 증권시장에서의 외국자본 순유출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됨.

- 2011/12년 2분기(7월~9월) 인도의 GDP증가율은 지난 2년간 최저인 6.9%를 기록하였음.³⁾
- 2011년 인도는 수출 부진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2012년 상반기 GDP의 약 3.6%에 달하였으며,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 16년 간 최대인 GDP대비 약 6.8%수준까지 확대되었음.
 - o 2011년 11월 30일 인도 중앙은행 부총재는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정된 외국인투자자금 유입을 선호한다고 시사한 바 있음.

1) 보다폰은 2007년 홍콩의 통신회사인 허치슨 완포아 그룹의 인도 자회사인 허치슨 에사르를 11억 달러에 인수하였음. 이에 대해 인도 세무당국이 보다폰에 자본이득세 25억 달러를 부과하자, 보다폰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음. 인도 대법원은 해당 거래가 외국 회사 간 거래로 인도 세무당국에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하였음.

2) 그 동안은 FII와 NRI(Non-Resident Indian)만 증시에 직접 투자할 수 있었고, 외국인개인투자자는 FII를 통해서 투자하는 등 간접적인 루트를 이용해야 했음.

3) 2010/11 회계연도 인도 GDP 증가율은 8.4%였음.

그림1. 교역 및 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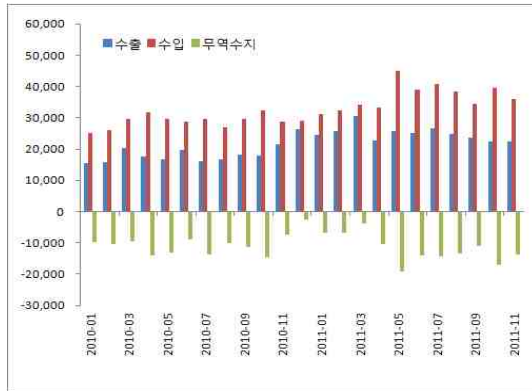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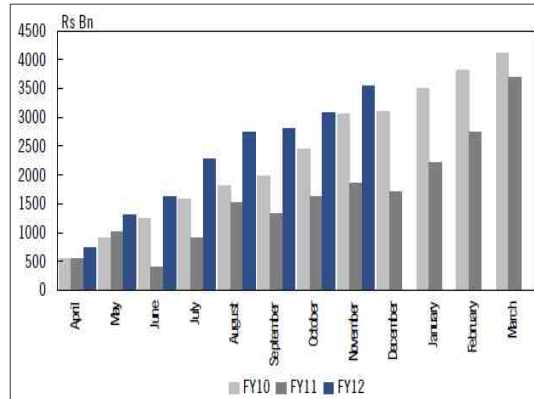


그림2. 재정적자 추이



자료: 인도재무부, City Group

- 또한 2011/12 2사분기에 인도 FII 순유출이 발생한 바 있으며⁴⁾, 이와 함께 인도 루피 가치는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19% 하락함.

■ 세계경제 전망이 불확실하고 인도 경기도 둔화되는 상황에서 인도의 외자 유치 노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인도 정부는 2012년 3월에 발표될 2012년도 예산안에도 투자자 친화적인 정책을 포함시킬 것이라 시사함.
 - o 특히 인프라, 노동 집약적 산업, 냉동 체인, 조달 체인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가 포함될 예정임.

〈출처: *Economic Times, Hindustan Times, Business Today, CNBC, The New York Times*〉
(정혜원 연구원)

4) 인도 증권거래관리위원회(SEBI) 자료에 의하면 2011/12 2사분기 FII 순유출액이 약 6억 달러였음.